



2017년 4월 02일(제817호) 시순 제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리자로야, 이리 나와라!!”

찬미 예수님. 사순 제5주일을 맞아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들은 부활의 희망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제 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무덤과도 같은 유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제2독서에서는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어 당신께서 부활이요, 참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희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유배의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느님 자녀로서의 참으로 소중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세속의 가치들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하고 눈물을 흘리던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세상의 시련과 슬픔 속에서 나약해지고 무력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무덤 속에 부패한 시신처럼 악취를 풍기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한계 속에서 힘겨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더는 어둠과 고통의 무덤 속에서 머물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따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자괴감과 수침심의 커다란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욕심과 유혹의 천을 풀어 버리며,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속적 가치의 수건을 걷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 시기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시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덤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민호(비오로) 신부
절벽(옥군 제23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에제 37,12ㄴ-14

회 답 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 독 시

로마 8,8-11

복음 본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요한 11,1-45<또는 11,3-7.17.20-27.33ㄴ-45>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진리를 살다

대영광송은 찬미가로 초대 그리스도교의 시(詩) 중에 특히 귀중한 시입니다. 이 찬미가는 앞에 나온 “자비송”과 같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미와 찬송이며 장엄한 인사입니다. “자비송”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환영하는 인사라고 한다면 대영광송은 이미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좀 더 구체적인 말로 칭송하는 인사입니다. 기쁜 날, 잔칫날, 축제의 날에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기쁨을 아무리 해도 충분하게 드러낼 수 없으며 그 기쁨을 한 번만 외칠 뿐 아니라, 표현을 달리하여 멀리 메아리치도록 노래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어 백성이 된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극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날 밤에 천사들이 부른 찬양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그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까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앙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첫 부분은 하느님, 특히 성부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높이 받드나이다.”(“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이들 찬사는 표현은 다르지만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는 마음을 다양하게 말합니다. 하느님 찬양은 경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용솟음치며 마치 바다의 파도가 서로 겹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찬양의 동기는 “주님 영광 크시오니” 에서 다시 한 번 명백히 고백합니다. 실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간청 기도만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만일 누가 물이 자기 목에까지 차오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는

대영광송

아직도 그리스도교 신심의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대영광송 본문의 둘째 부분은 아버지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췌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이 소절은 구세주께 향하는 여러 개의 존귀한 칭호로 시작합니다.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성부의 아드님이어.” 이 각각의 칭호는 마치 그리스도 신앙의 단축양식과 같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는 짧은 간청 기도문으로 이끕니다. : “세상에 죄를 없애시고 성부 오른 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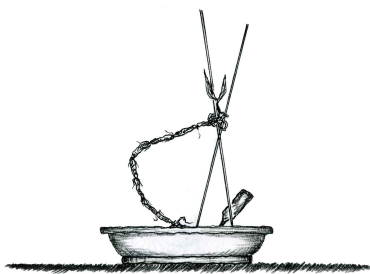
그리스도 찬가인 대영광송 전체는 이제 세 번의 ‘홀로’로 시작되는 찬양으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이 ‘홀로’ 찬양은 황제나 우상을 주님으로 숭배하라는 강요를 거절하고 목숨을 바친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의 확고한 신앙고백을 연상 시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 잡신들과 제왕 숭배를 거슬러 싸우던 강력한 도전의 인사를 느끼게 합니다. 그 시대는 황제 숭배 시대였으며 화려한 신들의 축제들과 공개적인 제사의식,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그리스도교도 박해시대였습니다. 많은 황제들은 신으로 올려져 공경하길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분향 제사를 바치길 거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과 국가의 원수나 적으로, 국민의 해충으로 의심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작은 인사

포기 않고,
살피는 그 마음에
작은 일 싹 피워,
인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상화이야기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벨리니 (1430-1516)
1480년 작,
패널 위 유화, 124.6 X 142 cm
프릭 컬렉션 미술관, 미국 뉴욕

만테냐가 그림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간 축소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과 곁에서 슬퍼하고 있는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을 마주하자면, 마치 우리 자신도 무덤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좁은 공간에 누워계신 예수님의 몸은 피와 상처 투성이로, 심하게 일그러지신 표정의 예수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하다. 두 손과 발의 못 자국은 선명하고, 시간이 지나 말라붙은 피부상처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두 손의 상처는 우리가 보기 쉽도록 약간 세워져 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곁에서 슬퍼하는 인물들이 성모님과 사도 요한 2명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입을 벌려 크게 통곡하고 있는 제3의 인물 얼굴이 보인다(맨 위쪽). 이는 마리아 막달레나로 예수님의 시신 우측에 있는 성유함으로 이 인물이 그녀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나이든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진 성모님 얼굴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흐르는 붉은 눈물방울은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

김은혜(벨리니아트)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5주일: 히상비오로 송재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불무리(26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2일(주일)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4월 3일(월) 15:00, 가톨릭 회관 1층 강당
- 국장회의
때·곳: 4월 4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장교 입영 진 오리엔테이션

때: 4월 6일(목)~7일(금), 1박 2일
곳: 안양, 아론의 집

◆ 대례사회 미사 및 모임

때: 4월 6일(목), 11: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